

1. 개요

- 운영형태: 당일형(90분)
- 주요내용: 청소년에게 자연, 역사·문화를 전하는 자연생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봉사활동 체험

1. 세부 일정

시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장소	준비물	비고
10:00~10:05 (5분)	도입부	○ 첫 만남 - 인사 및 국립공원소개 - 일정 소개 및 체조	일광정	구급약품	안전 교육
10:05~10:15 (5분)	전개부 자연, 문화 해설 및 비자나무 향기체험	○ 일광정 - 국립공원이란? - 백양골 소개 - 일광정 연못 - 당산나무	일광정 연못		국립 공원 소개
10:15~10:30 (10분)		○ 갈참나무길 - 갈참나무 - 애기단풍	갈참나무 길		자연 해설
10:30 ~10:45 (10분)		○ 천년고찰백양사 와 쌍계루 - 쌍계루의 역사 - 쌍계루의 240여편의 시 - 백양사의 유래 - 고불매 소개	쌍계루		문화 해설
10:45 ~11:05 (15분)		○ 비자나무 생태, 향기체험 - 비자나무 생태 - 비자나무 향기체험	곡두재 비자데 크		비자나 무체험
11:05~ 11:25 (40분)	봉사활동 (선택사항)	○ 봉사활동 체험 - 쓰레기 줍기 - 외래식물 제거	비자데 크~일광 정		
11:25~ 11:30 (5분)	마무리	○ 마무리 (느낌나누기) - 소감 나누기 - 설문지 작성	일광정		설문 작성

□ 세부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내용
<p>백양골 탐방</p> 	<p>[목적] 이동하면서 오감을 이용해 주변 식물, 나무 등을 관찰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기 [진행방법] 백양골에서 볼 수 있는 식물, 나무 등 소개</p>
<p>백양사 기행</p> 	<p>[목적] 백양사의 역사와 문화 이해하기 [진행방법] 백양사를 돌아보며 역사와 문화 등 소개</p>
<p>비자나무 군락지</p> 	<p>[목적] 비자나무숲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기 [진행방법] 비자나무의 스토리와 피톤치드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p>
<p>곡두재 자연관찰로 걷기</p> 	<p>[목적] 오감을 이용한 자연체험 [진행방법] 자연관찰로를 따라 걸으며 오감을 이용해 주변 식물들 관찰하고 비자테크에서 비자향과 주변 소리 들어보기</p>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시간
도입	소개 및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공원 및 일정소개 - 내장산국립공원 백양골 소개하기 - 프로그램 개요 및 안전체조 	5분
전개	자연과 문화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광정 - 연못 주변에서 만나는 자연과 문화 ▶당산나무 - 당산나무 소개 - 소원 빌기 ▶갈참나무 길 - 갈참나무 소개 - 애기단풍 소개 	25분
	백양사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쌍계루 - 쌍계루의 역사 - 기문과 옛 선조들의 풍류 ▶백양사 탐방 - 백양사의 유래 - 백양사 문화탐방 	15분
	비자나무 생태,향기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자나무 숲 체험 - 오감을 이용해 주변 식물 관찰 - 비자나무의 중요성과 피톤치드 체험 	20분
	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사활동 - 쓰레기 줍기 - 외래식물 제거 	20분
마무리	소감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낌 나누기 및 마무리 - 소감발표 - 설문조사 	5분

첨부2 :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



운영장소 내장산국립공원 백양골 일원

참가대상 청소년 15명 내외

운영시간 90분

참가비용 무료

신청방법 전화, 현장, 인터넷(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갈참나무 길

오랜 세월을 인내한 갈참나무 할아버지와 주변 소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갈참나무할아버지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의 해설을 들으며 이곳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년고찰 백양사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천년고찰 백양사 여행

백양사 전설, 쌍계루 이야기 등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해 보세요. 선조들의 지혜와 얼을 엿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나보세요.

피톤치드 가득한

비자나무

자연을 답아기는 체험시간

오감을 살려 주변을 잘 관찰해 보세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비자향 가득한 비자숲에서 마음까지 상쾌해 지는 오감만족 프로그램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

활동장소	백양골 자연관찰로 일원
소요시간	90분
참가대상	청소년
참가인원	15명 내외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공원에서 체험활동 등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역사·문화를 체험 사찰여행을 통해 옛 선조들의 지혜와 얼을 엿보기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급상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외 활동 안전사고 유의 자연 훼손하지 않기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 및 백양골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 및 안전체조 국립공원 소개 	5분
전개 (자연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광정 소개 당산나무 소개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참나무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0년 된 갈참나무 애기단풍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년고찰 백양사와 쌍계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쌍계루의 역사 쌍계루의 240여편의 시 백양사의 유래 고불매 소개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자나무 생태, 피톤치드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자나무 생태 피톤치드 체험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사활동 체험 (선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 줍기 	4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감 발표 및 설문조사 주변정리 	5분

시나리오

인사 및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자연환경 해설사 000입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와 문화를 후손에게 전해주기 위해 국가가 직접 보호하고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1987년 전문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국립공원공단이 설립되었으며 총22개의 국립공원 중 한라산국립공원 제외한 21개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장산국립공원은 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 소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설할 이곳은 단풍나무 잎의 크기가 아기 손바닥 만큼 작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애기단풍과 아름답리 갈참나무 그리고 천연기념물 제153호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아 비자나무 군락지로 유명한 백암산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조선시대 환양선사의 설법을 듣고 흰 양이 환생했다는 전설이 깃든 천년고찰 백양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년고찰 백양사 주위에 계곡을 따라 조성된 자연관찰로에서는 500년 이상 된 갈참나무 숲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비자나무 숲을 비롯하여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이곳 일광정에서 시작해 갈참나무숲 길을 걸으며 자연을 느끼고 백양사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한 다음 자연관찰로에서 비자향을 담은 명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모였던 일광정까지 봉사활동을 하며 내려가겠습니다. 백양탐방지원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쾌해 지는 자연해설을 듣고 국립공원을 지키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임해주세요.)

국립공원을 탐방할 때는 자연의 주인인 야생 동식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고성방가 등의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처럼 국립공원을 사랑하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이 더욱더 보호 될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여 누구나 부담없이 국립공원을 찾아 자연을 즐기고 힐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린 포인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도록 하여 공원 내 쓰레기통을 없애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보호하여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고 물려주는 것이 바로 국립공원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구급약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저와 안전 체조 함께 하겠습니다.

(몸풀기 체조)

일광정

한일자 빛광자 정자를 써서 일광정이라 부릅니다. 일광정에 아침해가 떠오르면 이곳 일광정 일대를 제일 먼저 환하게 비추어서 일광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연못을 한 번 봐주세요. 이 연못은 마치 자연적으로 생겨난 연못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공연못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연못이 우리나라 전통연못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연못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

옛날사람들은 땅은 네모모양이고 하늘은 동그란 모양이라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인 조형물을 만들 때에도 이러한 우주관에 따라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하였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연못은 네모모양은 아니지요? 이것은 자연적인 지형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인공물이라도 자연, 나아가서는 우주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선조들의 생각을 느낄 수 있으시겠죠?

이러한 선조들의 생각은 현대의 과학으로 살펴보더라도 너무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인데 가운데에 섬을 만들어 주면 물결이 섬에 부딪쳐 물의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물의 흐름이연못물이 고여서 쉽게 썩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연못 하나를 만들 때도 자연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선조들의 뛰어난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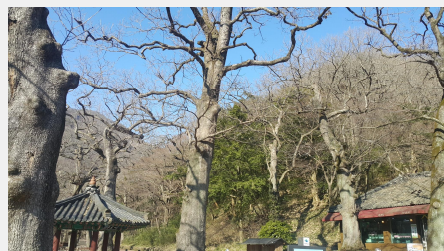
당산나무

여기 보이는 이 나무는 갈참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과 다른 점이 느껴지나요? (참여유도/의견정리) 그렇습니다. 이 나무는 나무줄기에 황금색 새끼줄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하는 나무로 당산목이라 부른답니다. 당산목은 마을의 안녕과 복을 빌기 위해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나무를 지정하여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나무입니다. 보통 당산제는 마을 사람들이 주관하여 지내는데 이곳에서는 특이하게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당산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당산목에 새끼줄을 두르고 붉은 황토를 뿌려 이곳이신성한 곳임을 표시하였고 소원이 있으면 창호지에 소원을 적어 새끼줄에 꽃아 기원하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옛날 선조들은 생명이 있는 자연이 신성함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연을 함부로 대하거나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을 기반으로 자연에서 모든 것을 얻었던 옛사람들이 자연을 신성시 했던 모습,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잠시 나에게 당산목 같은 존재는 누구인지 생각해 보고,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빌어 볼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



▲ 일광정 연못



▲ 당산나무

갈참나무길

길가에 아름답리 갈참나무들이 줄지어 서있는 이곳을 갈참나무길이라고 부르며 봄이면 갈참나무의 새순이 돋아나는 모습에서 봄의 기운을 느끼기 위하여 전국에서 많은 탐방객들이 찾아오는 명소중의 한 곳입니다. 이렇게 커다랗고 우람한 갈참나무는 산에 가서도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갈참나무

는 참나무과에 속하는 육형제중 하나인데요, 참나무의 참은 진짜라는 뜻이며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입니다. 선조 임금님의 수라상에 도토리묵이 올려졌다 하여 상수리나무, 열매가 참나무 중에서 가장 작아서 이름 지어진 졸참나무, 지금 보이시는 일광정의 갈참나무는 가을 늦게까지 잎이 오래 달려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참나무들 열매들은 열매에 둘러 있는 깍지들이 민모자 모양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줄기 껍질이 폭신하여 코르크 마개로 사용되는 굴참나무, 옛날 짚신 안에 잎을 깔아서 신은 신갈나무, 잎에 있는 털에 방부 효과를 가지고 있어 떡을 싸서 보관 하였던 떡갈나무들은 열매에 쓰고 있는 깍지들이 털모자로 되어 있습니다. 참나무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는가요? 네 바로 참숯이죠. 옛날에 연료가 나무였던 시대에는 참나무로 만든 숯을 장에 갔다 팔면 값을 후하게 받아 식량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양사 입구 이곳의 갈참나무들은 오랜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지역에 이렇게 오래된 갈참나무가 한그루만 있어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림이 어려웠던 옛날에 가장 좋은 숯을 만들어 식량과 바꿀 수 있었던 나무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갈참나무 길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천년사찰 백양사 앞에 있는 나무를 자르면 집안에 우환이 든다는 믿음 때문에 이처럼 오랜 세월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갈참나무가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갈참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참나무 열매를 좋아하는 누구죠 네 다람쥐. 어치, 동박새 등 많은 동물들과 곤충들이 찾아오고 있어서 우람하고 오래된 갈참나무 길은 야생 동물들의 집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애기단풍

내장산 하면 많은 탐방객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나무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을 빨갛게 물들이는 단풍나무인데요. 단풍나무는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200여종,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40여종 그중 내장산 국립공원에는 13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을 짹 펴보세요. 손바닥을 단풍잎이라고 생각하면 단풍잎마다 손가락의 수가 다릅니다. (교보재를 보여주며) 신나무와 중국단풍의 잎은 3갈래, 고로쇠는 5갈래, 단풍나무는 7갈래, 애기단풍은 6~7갈래, 당단풍은 8~9갈래로 잎이 갈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과 크기도 제 각각인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지구는 독특한 말발굽 형태의 지형 때문에 일교차가 커서 잎이 조그마한 애기단풍 나무의 단풍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단풍잎이 아기손바닥처럼 조그마하여 애기단풍나무라고 이름이 지어 졌습니다. 여러분 봄에 피는 애기단풍나무꽃을 본적 있으세요? 바로 봄에 잎이 겨울눈에서 나올 때 꽃눈도 함께 나와 잎과 함께 꽃이 펼쳐지는데 마치 건빵속에 들어 있는 별사탕 요정 같습니다. 이곳 백양사지구에 4월에 오시면 애기단풍 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름에 애기단풍나무는 백양골 자연관찰로에서 가장 사랑받는 초록빛을 뽐내다 가을이면 빨간빛으로 물들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을에 단풍이 드는 이유는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한 생존전략입니다. 기온이 떨어져 광합성 작용을 멈추면 나뭇잎이 본래 가지고 있던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단풍이라고 합니다. 어느 가을날 과학자가 바람을 타고 빙글빙글 돌며 하늘을 나는 애기단풍나무의 씨앗을 보고 나서 단풍나무 씨앗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고 생각하여 단풍나무 씨앗을 자세히 관찰 하였더니 그 속에 작용과 반작용의 프로펠라 법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원리를 이용하여 하늘을 날수 있는 헬리콥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백양골에 찬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이 오면 애기단풍나무는 주렁주렁 달고 있던 나뭇잎과 씨앗을 떨치고 겨울동안 다가오는 겨울눈에 꿈을 키우며 따스한 봄을 기다립니다. 겨울눈이 겨울을 견뎌내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면 커서 멋진 어른이 될거예요.



▲ 애기단풍



▲ 갈참나무길

쌍계루

여기 보이는 이 누각은 1350년 각진국사에 의해 처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1370년에 붕괴된 이후 1377년에 복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도전, 이색 등 문인들이 기문을 남겼습니다. 특히 1381년에 작성된 이색의 『백암산정토사쌍계루기』에 따르면 이곳에서 두 개의 물이 합쳐지므로 두쌍자 계곡계자를 서서 '쌍계루'라고 하였습니다. 이곳 백양골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누각과 정자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정자와 누각이 지어지는 장소는 경치가 좋은 곳에 지어졌습니다. 정자와 누각의 차이점을 아는 친구 있나요?. 네. 정자는 1층으로 된 건물로 누각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누각은 2층으로 된 건물로 정자보다는 규모가 큼니다. 우리가 맨 처음 만났던 장소인 일광정은 정자이고 이곳 쌍계루는 누각입니다. 사방을 바라 볼 수 있도록 문과 벽이 없어 다락처럼 높이 지은 누각은 문인들이 시와 노래를 짓던 장소였습니다. 자 이제 쌍계루에 올라 누각의 아름다움을 느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 앉아 뒤로는 백학봉의 기운을 받고 앞으로는 물결에 비친 세상을 보며 풍류를 즐겼습니다. 쌍계루 누각에 올라오니 사방으로 펼쳐 보이는 경치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지붕아래 사면으로 검은바탕에 흰 한자들이 뿅뿅이 적어져 있는데 무엇이라 할까요? 네 현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40여년전에 뛰어난 문인 한분이 이곳 쌍계루에 관한 시를 한편 남기셨습니다. 그러자 그 뒤를 이어 많은 문인들이 쌍계루에 관한 시와 글을 남겨 이곳에 240여편의 글들이 있습니다. 정면 바로 옆에 조그마한 현판인데요. 정면 중앙에 있는 큰 현판이 맨 처음 지어진 쌍계루 시입니다. 내용을 읽어 보면 구시금견 백암승(지금 시를 칭하는 백암사 스님을 보니), 파필침음 괴미능(붓을 잡고 읊조리매 재능 없어 부끄럽네), 청수기루 명시중(청수가 누각을 세워 비로소 이름 귀해졌고), 목옹작기 가환중(목옹(이색)이 기문 짓자 값이 더욱 높아졌네), 연광표묘 모산자(안개가 아득하니 저녁 산은 붉은빛이고, 월영배회 추수징(달빛이 배회하니 가을 시내물이 맑구나), 구향인간 번열뇌(오랫동안 속세에서 번뇌로 시달렸으니). 불위하일 공군등(어느 날 옷을 떨치고 그대와 함께 오를까)라고 하였습니다. **포은 정몽주 문인이 지은 시인데 여기서 님이란 왕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즉, 이 시는 언젠가 왕과**

함께 경치좋은 쌍계루에 올라 시름을 달래고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몽주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 있나요? 네~ 열심히 역사공부를 한 친구네요. 정몽주는 고려말 문신으로 조선 개창 당시 이방원이 ‘하여가’를 써서 정몽주를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정몽주는 거절의 의미로 ‘단심가’를 써서 답했습니다. 이에 역사에서는 정몽주를 충신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유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쌍계루에 올라와 있습니다. 쌍계루는 선비들이 잠시 정사와 공부에 대한 시름을 잊고 시와 음악을 읊으며 풍류를 즐겼던 우리의 문화공간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친구들도 옛 선조들처럼 잠시 공부 걱정은 내려놓고 주변의 경치를 마음속에 담아가길 바랍니다.



▲ 쌍계루



▲ 백양사

백양사

이 사찰은 현재는 백양사라고 불리는데 처음부터 백양사라고 불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번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몇 번이나 이름이 바뀌었는지 아는 친구 있어요? 네~ 답은 3번입니다.

백양사는 백제무왕33년(632년)에 여환선사에 의해 맨 처음 ‘백암사’라고 창건 되었으며 고려시대 때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극락정토 세계를 추구하고자 ‘정토사’라고 고친 후 조선선조 때 영천암에서 환양선사가 법화경을 설법하자 구름떼처럼 사람들이 몰려와 설법을 들었다 합니다. 일주일간의 설법이 끝난 밤에 스님의 꿈속에 흰 양이 나타나 스님저는 천상에서 죄를 짓고 지상으로 흰 양이 되어 내려와 스님의 설법을 듣고 깊이 뉘우쳐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며 스님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환양선사가 영천암 뒤로 가보자 흰양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뒤 흰백, 양양자를 써서 ‘백양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백양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이고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수덕사에 이어 5번째 총림으로 지정된 고불총림입니다. 총림이란 승려들의 참선 수행 전문 도량인 선원(禪院)과 경전 교육 기관인 강원(講院), 계율 전문 교육기관인 을원(律院) 등을 모두 갖춘 사찰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게 될 불교계의 대학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백양사는 인간 본래의 면목이란 의미를 가진 고불 총림으로 부처님 원래의 가르침을 기리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불총림 백양사 주위에는 울긋불긋 단풍나무와 갈참나무, 비자나무등 은행나무, 감나무들이 가을의 정취를 더해 주는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가을 못지않게 해마다 봄이 되면 백양사 앞마당에 350년된 고불매는 호남 5매중 하나로 많은 탐매가 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3월 백양사 앞마당의 고불매 꽃들이 일제히 피어났을 때 함박눈이 펄펄 내려 온 세상에 눈인지 매화꽃인지 황홀한 풍경을 이루고 있을 때 때마침 스님께서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고 있을 때 그 장면을 사진작가가 카메라에 찍어 국립공원 사진전시회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백양사경내의 350년된 고불매는 호남 5매 중의 하나로서 매월 3월이면 고불매꽃들이 향기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천년고찰 백양사의 정취를 더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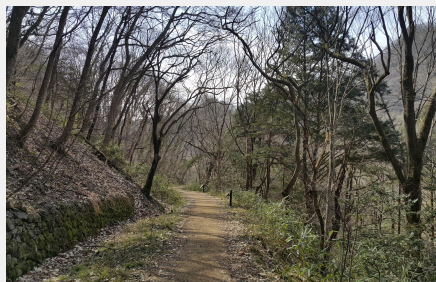
곡두재 자연관찰로

이 곳은 곡두재 자연관찰로입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나무, 식물 등이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된 곳입니다. 오감을 이용해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마음속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자데크까지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어쩌면 다람쥐를 볼지도 모르겠네요. ^^*

(비자데크에서)

이 곳은 비자나무가 자라고 있는 비자데크입니다. 이 곳에서 앉아서 잠시 눈을 감고 주변 소리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의견교환/정리)

이번엔 눈을 감고 주변 향기를 맛보세요. 어때요? 몸과 마음이 상쾌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이것은 아까 소개해 드렸던 피톤치드 덕분입니다. 피톤치드는 식물들이 각종 병균과 해충, 곰팡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뿜어내는 휘발성 향기물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톤치드는 강한 살균작용을 하는데, 숲속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 그 공기를 통해서 흡입된 피톤치드가 인간의 몸속에 들어 있는 나쁜 균들을 선택적으로 살균함으로써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몸속의 피와 머리를 맑아지게 해 준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몸이 좀 건강해 졌나요? 공부 스트레스를 이곳에서 싹~~ 날려 가길 바랍니다.



▲ 자연관찰로



▲ 비자데크

봉사활동

여러분 백양골 자연관찰로 탐험하고 나니 국립공원 자연과 문화가 소중한다고 느껴지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처음 우리가 만났던 일광정까지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주우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청결작업과 외래식물 제거 작업은 여러분과 함께 다음에 오시는 탐방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자연관찰로 탐방이 될것입니다. 마음을 담아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을 함께 하였습니다. 백양골 자연관찰로에서 만나는 특별한 나무들과 천년고찰 백양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은 자연과 문화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마다 자신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백양골에서 만나는 자연과 문화가 너무 친근하여 이제는 마치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져 말로 인사 건네주는 사이입니다. 친해서 인사 하게 되었는지 인사 하여서 친해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사를 하면 저절로 친해지며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연속에서 만나는 모르는 사람들과도 나무와 꽃들 다람쥐에게도 인사 나누기 하면서 백양골 자연관찰로를 탐방 하시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마음속에 추억의 사진 한 장 남기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으로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교보재



참나무 종류 (참나무 6형제)

갈참나무

가을참나무라고 부르다가 갈참나무가 되었답니다.
잎은 주걱모양을 하고 있고 뒷면은 회백색입니다.

굴참나무

껍질에 난 골 때문에 굴참이라 하였다가 지금은 굴참나무라 불립니다.
잎 뒷면에는 털이 있어 흰색으로 보인답니다.

떡갈나무

잎이 방부효과가 뛰어난 떡을 썬데 사용되었다 하여 떡갈나무라 불립니다.
잎 뒷면에 갈색 털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수리나무

임금님 수라상에 도토리묵을 만들어 올렸다 하여 상수리나무라 불립니다.
잎 끝부분이 피침형(창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잎 가장자리가 날카롭습니다.

신갈나무

옛날 짚신 안에 잎을 깔았다 하여 신갈나무라 불립니다.
잎은 크고 털이 없으며 가장자리는 물결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졸참나무

참나무 중 가장 작은 잎과 열매가 있어 졸(卒;졸병졸) 참나무라 불립니다.
작고 끝이 날카로운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나무 종류 해설



신나무



중국단풍



고로쇠나무



단풍나무



애기단풍



당단풍

백양골 단풍나무 종류



대명매



선암사매



홍매



고블매



계당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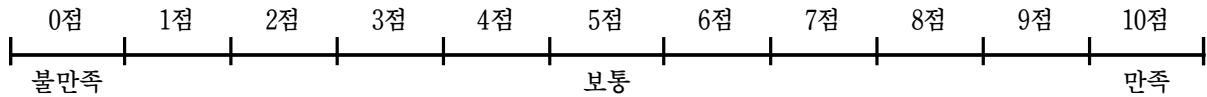
호남 5대 매화

<붙임2> 설문지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 만족도 조사 설문(청소년대상)

비자향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개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는 다른 자연 해설 프로그램을 많이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 프로그램 내용과 주제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 프로그램 참여 후 지인에게 소개 하고자 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 다시 프로그램에 참석 하신다면 어느 계절에 방문하고자 합니까?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⑤ 언제든지
- 이번 프로그램 참석한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되었다 ⑤ 매우 아니되었다
-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표현한다면?



7. 본 프로그램 중 각각의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산행 안전교육 및	5	4	3	2	1
백양골 자연관찰로 해설	5	4	3	2	1
사찰 문화해설	5	4	3	2	1

-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 프로그램 과정 중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적어 주십시오.
- 본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이나 의견을 자세하게 적어주십시오.

※ 기초조사 항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성 별 ① 남 ② 여
 연령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기타